

UNECE/EUROSTAT 인구이동 공동회의

1. 회의개요

- 일시: 2006.11.20. - 22.
- 장소: 영국 에딘버러 (Roxburgh Hotel)
- 참가규모: 51개국 국가통계기관, 6개 국제기관 및 전문가
 - 주요인사: Magaret Michalowski(캐나다 통계청 이민 및 인종문화 통계과장)
Patrick Corr(호주 통계청 인구국장)
Goerges Lemaitre(OECD 고용/노동/사회사업 과장)
Michel Poulain(벨기에 Louvain대 교수)등
- 참가자: 이지연(5급)

2. 주요 논의 사항

- 자국민의 국외이민(**emmigration**)통계 생산을 위한 국가간 자료교환
 - EU는 모든 회원국의 국가통계기관에서 국제이동통계 작성을 의무화하는 EU법안을 2008년 부터 시행할 예정
 - 국제이동통계중 외국인의 국내이민(**immgration**)은 stock과 flow 통계가 있는 반면 자국민의 국외이민(특히 stock)은 자료부족으로 구체적인 통계작성이 불가능한 실정

국제이동분류별 자료원 및 문제점

국제이동 분류	국외이민자	국내이민자	임시이주자
자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입국기록/승객조사 외국체류자 등록부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구등록부 외국인등록부 출입국기록/ 승객조사² 가구조사 해외이민자 정보원 조사³ 센서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인등록부 출입국기록/ 승객조사 해외이민자 정보원 조사 센서스
문제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flow 통계: 출국당시의 목적지만 파악가능 stock 통계: 부재(예: 학력, 직업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커버리지 불완전 (예:불법체류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단기 거주기간 구분 불일치 (예:3개월, 6개월)

¹: 캐나다, 폴란드

²: 호주, 영국

³: 캐나다, 이태리, 스페인

- 유럽통계국은 2005년에 국가통계기관이 보유한 국내이민자 자료를 국가간 상호교환하여 국외이민자 통계를 생산하는 T/F팀 운영
 - 현재 19개국이 참가중이며 캐나다, 에스토니아, 포르투갈, 스위스를 주축으로 4개 그룹별 자료교환과 표준화된 국외이민자 통계모듈을 작성하는 프로젝트 수행중
- 국외이민자 통계 모듈에 따른 자료생산은 2008년 부터 실시되며 2010라운드 센서스 이후부터는 자료교환을 통해 전EU 회원국에서 국외이민 통계를 작성할 예정
- 그러나, 국가간 이민법 차이로 인해 거주기간에 따른 장단기 이민자의 구분 및 통계작성 주기등이 쟁점사안으로 남아있음

□ 가구조사를 통한 외화송금(remittances)통계 작성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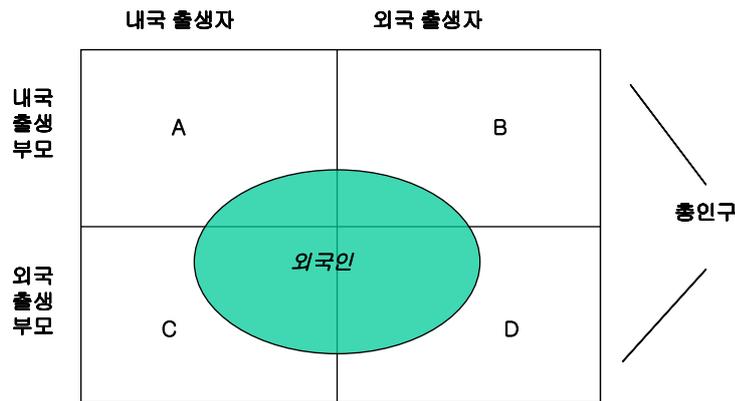
- 저개발국 경제에서 외화송금의 비중이 해외직접투자 및 개발지원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나, 해외이주자의 송금통계는 커버리지 문제와 개념차이가 존재
- 최근 룩셈부르크 그룹(UN technical working group)은 국제수지 프레임워크하에 다른 국가의 가구간 금융 및 비금융 이전의 측정과 분류방안을 발표
- 은행등을 통한 공식적인 채널이외에 비공식송금의 규모는 파악할 수 없어 ILO에서는 가구조사를 통해 미시적인 차원에서 외화송금 현황을 파악하는 프로젝트 수행
 - 외화송금 비중이 높은 아르메니아, 태국, 몰도바에서 조사 실시
- 그러나, 적합한 표본추출 방법과 가구내 해외이주자 파악이 어렵고 금융 및 비금융이전을 측정하는 방법의 표준화문제가 쟁점사안

3. 시사점

- EU법안이 실행될 경우 2010라운드 센서스 이후부터는 유럽과 북미, 오세아니아지역 한국인 이민자에 대한 자료 접근이 가능해 짐
- 그러나,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한국내 외국이민자에 대한 stock통계 제공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자료원인 총조사의 외국인 커버리지와 조사항목의 부분적 검토 필요

※ 현재 OECD의 Foreign-born and Expatriates DB에 총조사의 국적별 외국인 이민자 규모 및 학력자료(2000년)는 제공 중임

- 2005년 총조사 결과 외국인인 총인구의 0.49%(237,517명)로 집계되었는데, 법무부 외국인 등록신고 자료와 26만명 차이가 발생
- 외국인은 네 가지 유형이 가능한데, 현재 총조사에서는 외국출생자인 경우(주로 D)만 조사되고 있어 커버리지 확대 필요



- 외국인의 비중이 크지 않은 한국에서 Eurostat 국내이민자 통계모듈이 충족되도록 총조사 항목을 전면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출생지와 1년 전 거주지 항목의 추가는 고려 가능

Eurostat 국내이민자 통계 항목과 2005년 총조사 항목 비교

Eurostat 국내이민자 모듈	출생지	국적	입국시기	부모출생 지	1년 전 거주지
2005년 총조사	×	○	○ ¹	×	×

¹거주기간 3개월 이상인자는 거주기간을, 3개월 이하인 자는 거주예상기간을 응답

- 국내이민자 및 외화송금 규모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가구조사에서 외국인 가구의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

4. 향후계획

- 회의 자료집 발간: 12월 중
- 출장 결과보고 발표 : 2007.1.10.
- 동향보고서 작성: 2007년 상반기 중